

특색있는 도서관 운영... 전주시, '책 읽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

모두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전주시가 추진 중인 농어인 특화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시민이 행복한 책 놀이터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도서관을 찾아오기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 무료 우편서비스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등 도서관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개인·단체의 접수를 받아 도서를 지원하고 책 놀이와 인형극을 보여주며 시민 모두 골고루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간 전주시가 기록과 출판문화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책의 도시 명성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며 시민의 행복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한 노력을 살펴보자.

▲저마다 특색 있는 도서관, 시민의 놀이터 역할 특화

전주시 공공도서관이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행복한 책 놀이터가 되고 있다.

11개 시립도서관은 국내서적 96만 여권과 서양도서 2,500여권, 다문화도서 5,700여권, 고서 581권 등 총 97만여권의 도서자료와 5,644개의 좌석(열람석 2,844)을 갖추고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공간구성으로,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내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정서적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립도서관 11곳, 다문화 자료실·어린이실·유아자료실 독서콘텐츠 제공 등 곳곳에 특색 있는 공간 구성 시민에 각광

먼저, 완산도서관은 586석의 열람실 등 관내 시립도서관 중 가장 많은 1,233석을 갖추고 있으며, 본관 2층에 관내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문화 관련 자료와 서적들을 열람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실을 둔 것이 특징이다. 평화도서관은 일반 도서열람실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자료실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어린이실과 유아실, 동화방 등도 갖추고 있다. 아중도서관은 어린이특화도서관으로써 어린이들이 가상대화구연을 체험할 수 있는 동화창의체험관과 유아자료실, 수유실, 어린이 자료실을 갖추고 있다. 또, 어르신들을 위한 열람실도 별도로 마련돼 있다.

지난해 총 64만6184명, 하루 평균 1,785명이 다녀간 서신도서관은 이용객 수가 가장 많은 도서관으로, 학습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일평균 자료대출권수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건지도서관도 사람과 생애, 인문학이 하나의 숲을 이루는 생태도서관으로 조성됐으며, 자연친화적인 태양광 랜드마크와 빗물받이 시설 등을 갖춘 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지어져 자연환경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자료실 개관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이 주경야독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완산, 송천, 아중, 죽림도서관 등 4개 도서관은 평일

(화~금) 일반자료실 이용시간을 10시까지 늘려 다채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특강을 실시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독서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 야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대출권수 11만 2,158권, 프로그램 참여자수가 4,062명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 그 결과 시민 1인당 2.6권에 해당하는 173만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통계기준 연간 390만명이 도서관을 이용했고, 도서대출 건수가 무려 120만 건에 달한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전주시는 곳곳에서 시민들이 책과 토론을 즐기고 독서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인생을 바꾸고, 삶과 영혼을 운택하게 할 한 권의 책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친형 8년간 도피 조력

최규성 검찰 소환 초읽기

검찰, 조만간 소환 조사

최규성(8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행각을 도운 조력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검찰에 쫓기던 친형인 최 전 교육감을 8년 2개월간 숨겨 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전남 나주혁신도시 농어촌공사 사장실과 최 전 사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최 전 사장은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과 계속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성 질환이 있는 최 전 교육감은 최 전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검찰은 최 전 사장을 비롯해 현재 신분이 확인된 '도피 조력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소환된 조력자만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좌 추적을 통해 최 전 교육감에

게 흘러간 돈의 출처도 파악 중이다. 하지만 최 전 교육감이 구속 직후부터 목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검찰 계획보다 수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 전 사장의 소환 시기는 도피 조력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12월 초에는 도피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 사장 측이 전날 밤늦게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이날 오전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도피 8년 2개월만에 검찰 수사관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프링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 됐다. /뉴시스



불법으로 설치된 승객 편의용 하우스.

불법 선박 구조 변경 낚시 어선 적발

군산해경, 11명 불구속 입건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종목)는 지난 9월말부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한 낚시 어선을 적발했다.

2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승객 편의와 운항 속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구조 변경한 9.7급 낚시어선 A호 선주 김씨(38) 등 11명을 적발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낚시어선으로 많이 사용되는 9.7급의 경우 선장과 이용객을 포함해 정員 22명이 승선하는데 공간이 협소하지만 손님들은 편의 공간이 넓고 속도가 빠른 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부 낚시어선은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1척 선주 모두를 불구속 입

건하고 낚시어선 등록과 관련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박종목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쓸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선체 상부가 높아진 배는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으로 이 같은 위협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군산해경은 일반 어선에 대해서도 그물과 어획물을 많이 실기 위해 불법 증개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불법으로 선박을 구조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전주시 완산구는 주민들의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는 해당 주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별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118건이 신청되었으며, 218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청 민원봉사실장은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시법이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실전과 같은 훈련

제409회 민방위의 날 전국민 화재대피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27일 전주시 송천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어린이들이 실전과 같은 모습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문화행사 외국어 안내서비스 새단장

시, 주요거점지역에 공연·축제 등 다국어 안내판 제공

매월 1만명 이상의 외국인 여행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이 다국어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와 전주의 우수한 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한옥마을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다국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글로벌 서비스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행사 안내판을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를 병행 표기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게시판을 통해 한옥마을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문화행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외국인 여행객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어 게시판을 현재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사거리와 경기전광장 2개소에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시

는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환경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외국인 여행객들이 기존에 전주한옥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전통 콘텐츠를 느낄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전주한옥마을이 국가대표 관광지로서 외국인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 수 집계를 위해 한옥마을서 사용된 카드 매출과 통신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10만여 명의 외국인 여행객이 방문, 월 평균 1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효철 기자

전주보건소 아토피 피부염 강연

전주보건소는 최근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에서 아토피 환자 등 시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강연을 했다.

아토피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과 습진성 발진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이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생활환경의 변화와 감염질환 감소로 인한 면역체계 변화로 인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소는 왕소정 함소아한의원 전주점 원장을 초청, △아토피 피부염 약화인자 관리 수칙 △피부 관리법 및 식이관리 등 환자 스스로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유의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아토피 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예방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북경찰 인권보호 '전국 최고'

경찰청 주관 인권수준향상도 평가 '최우수청' 선정

전북경찰청은 경찰청 주관하는 2018년 치안종합성과의 인권수준향상도 부분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청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대응, 관리규제, 침해 예방활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청 인권위원회 합동으로 전국 최초 도서지역 인권진단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인한 권고 건수 제로, △도로방범용 카메라를 이용한 수배차량 검거 시스템 개선으로 인권침해 예방, △경찰청 제7회 경찰인권영화제에 가족이라는 주제로 영화 제

작 출품해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 정책을 펼친 점을 인정받았다.

이번 인권수준향상도 평가 우수청 선정은 2018 치안성과 우수경찰관서(전주완산서) 전국 1위에 이은 것으로 전북경찰이 민생치안 뿐만 아니라 도민의 인권보호에도 앞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결과는 도내 전 직원이 헌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권보호를 위해 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절제된 법집행, 적법절차 준수,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